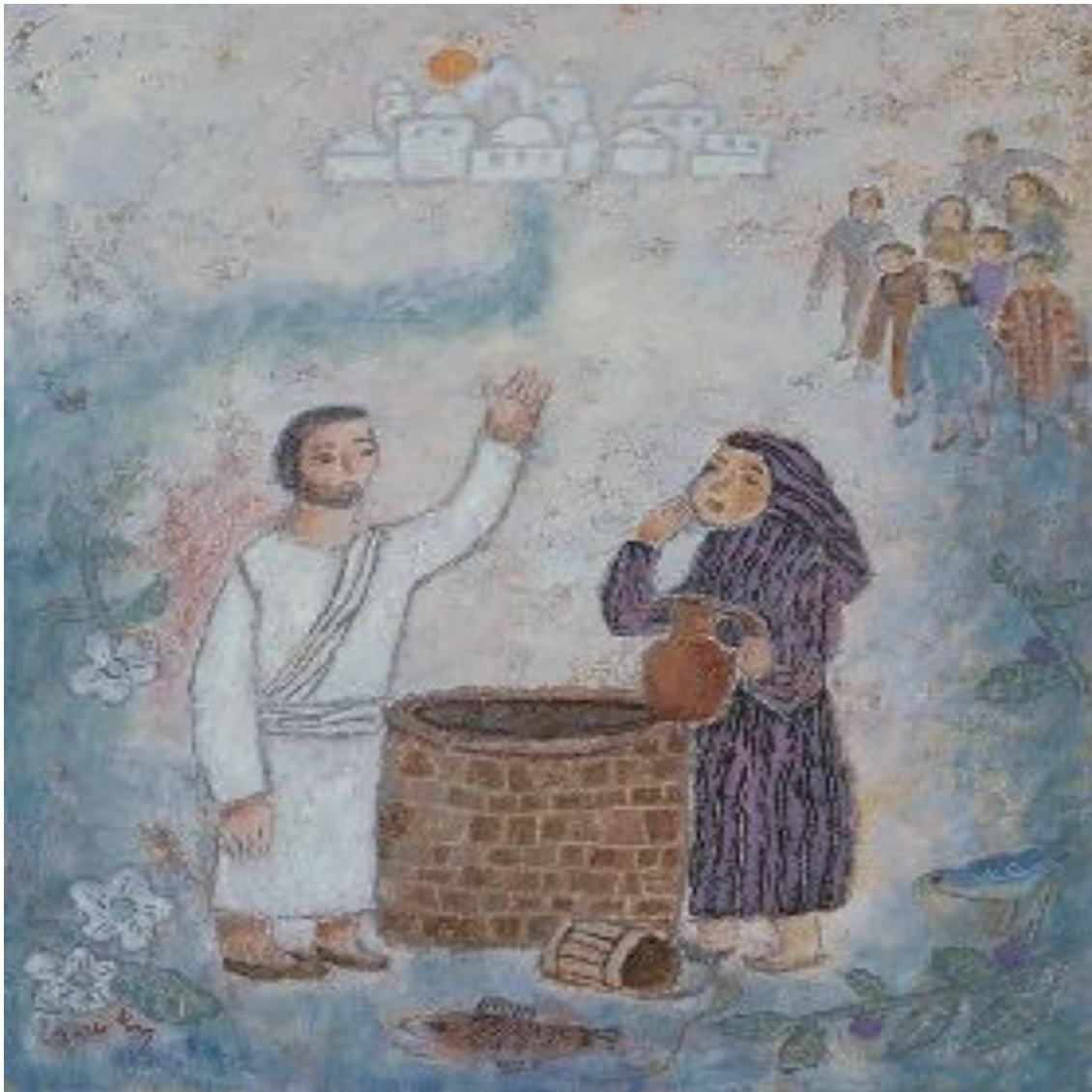


울림과 잠김

소공동체 모임 길잡이

발행인: 오승수 시몬 주임신부 | 편집: 소공동체지 편집팀
<https://standrewkimdetroit.org/detroit/bbs/monthly-meeting/>

사순 제3주일 (2023년 3월 12일)
쏟아오르는 영원한 생명의 샘물 (요한 4,5-42)



야곱의 우물가 | 그림 김옥순 수녀 성바오로딸수도회 (출처: 서울주보, 2014.3.23)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물이 솟는 샘이 되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할 것이다.” (요한 4,14)



1. 시작 기도

- (십자성호를 그으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 오늘 모임을 시작하면서, 가톨릭 성가 166장 '생명의 양식' 1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합니다.)

성체

생명의 양식 (요한 6)

166

M. Suzanne Toolan

1. 생 명의 양 식 인 나 에 게 로 오 너
 2. 이 빵 은 나 의 몸 너 희 에 게 주 노
 3. 내 살 을 먹 는 자 내 피 를 마 시 는
 4. 나 는 부 활 이 요 나 는 생 명 이 로

라 나 믿 는 사 람 들 은 목 마 르 지 않 으
 라 내 몸 먹 는 자 들 은 죽 음 당 하 지 않 으
 자 내 안 에 살 게 되 리 는 끝 없 는 행 복 속
 다 나 믿 는 사 람 들 은 죽 음 이 오 더

며 내 안 에 살 게 되 리 나 그를
 고 영 원 생 명 얻 으 리 라
 에 평 화 를 누 리 리 라
 도 영 원 히 살 리 라

사 랑 하 여 나 그를 살 게 하 리 나 그를
 영 원 히 영 원 히 살 게 하 리

- 예수님의 현존을 의식하며 아래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성경을 읽기 전에 드리는 기도

“말씀은 바로 네 곁에 있고 네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다.” (로마 10,8)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주교회의 성경위원회)

2. 기도 지향 나누기

- 각자의 기도 지향을 반원분들과 함께 나눕니다.

3. 하느님 말씀

- 한 분이 탈출기 17장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과 요한복음 4장 5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마싸와 므리바의 물

3 백성은 그곳에서 목이 말라, 모세에게 불평하며 말하였다. “어찌자고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왔소? 우리와 우리 자식들과 가축들을 목말라 죽게 하려고 그랬소?” 4 모세가 주님께 부르짖었다. “이 백성에게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제 조금만 있으면 저에게 돌을 던질 것 같습니다.” 5 그러자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의 원로들 가운데 몇 사람을 데리고 백성보다 앞서 나아가거라. 나일 강을 친 너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거라. 6 이제 내가 저기 호렙의 바위 위에서 네 앞에서 있겠다. 네가 그 바위를 치면 그곳에서 물이 터져 나와, 백성이 그것을 마시게 될 것이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원로들이 보는 앞에서 그대로 하였다. 7 그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시비하였다 해서, 그리고 그들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계시는가, 계시지 않는가?” 하면서 주님을 시험하였다 해서, 그곳의 이름을 마싸와 므리바라 하였다.

사마리아 여인과 이야기하시다

5 예수님께서서는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서 가까운 시카르라는 사마리아의 한 고을에 이르셨다. 6 그곳에는 야곱의 우물이 있었다. 길을 걷느라 지치신 예수님께서서는 그 우물가에 앉으셨다. 때는 정오 무렵이었다. 7 마침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으러 왔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에게 마실 물을 좀 다오.” 하고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8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고을에 가 있었다. 9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선생님은 어떻게 유다 사람이시면서 사마리아 여자인 저에게 마실 물을 청하십니까?” 사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았다. 10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대답하셨다. “네가 하느님의 선물을 알고 또 ‘나에게 마실 물을 좀 다오.’ 하고 너에게 말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오히려 네가 그에게 청하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11 그러자 그 여자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선생님, 두레박도 가지고 계시지 않고 우물도 깊은데, 어디에서 그 생수를 마련하시렵니까? 12 선생님이 저희 조상 야곱보다 더 훌륭한 분이시라는 말씀입니까? 그분께서 저희에게 이 우물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물론 그분의 자녀들과 가축들도 이 우물물을 마셨습니다.”



13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이르셨다.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누구나 다시 목마를 것이다. 14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물이 솟는 샘이 되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할 것이다.” 15 그러자 그 여자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선생님, 그 물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길으러 이리 나오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16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가서 네 남편을 불러 이리 함께 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17 그 여자가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한 것은 맞는 말이다. 18 너는 남편이 다섯이나 있었지만 지금 함께 사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니, 너는 바른대로 말하였다.” 19 여자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선생님, 이제 보니 선생님은 예언자시군요. 20 저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네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말합니다.” 21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아, 내 말을 믿어라. 너희가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곳에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22 너희는 알지도 못하는 분께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는 우리가 아는 분께 예배를 드린다. 구원은 유대인들에게서 오기 때문이다. 23 그러나 진실한 예배자들이 영과 진리 안에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사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들을 찾으신다. 24 하느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그분께 예배를 드리는 이는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25 그 여자가 예수님께, “저는 그리스도라고도 하는 메시아께서 오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분께서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 주시겠지요.” 하였다. 26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너와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27 바로 그대에 제자들이 돌아와 예수님께서 여자와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러나 아무도 “무엇을 찾고 계십니까?”, 또는 “저 여자와 무슨 이야기를 하십니까?” 하고 묻지 않았다. 28 그 여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고을로 가서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29 “제가 한 일을 모두 알아맞힌 사람이 있습니다. 와서 보십시오.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니실까요?” 30 그리하여 그들이 고을에서 나와 예수님께 모여 왔다. 31 그러는 동안 제자들은 예수님께 “스승님, 잡수십시오.” 하고 권하였다. 32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에게는 너희가 모르는 먹을 양식이 있다.” 하시자, 33 제자들은 서로 “누가 스승님께 잡수실 것을 갖다 드리기라도 하였다는 말인가?” 하고 말하였다. 34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실천하고, 그분의 일을 완수하는 것이다. 35 너희는 ‘아직도 녀 달이 지나야 수확 때가 온다.’ 하고 말하지 않느냐? 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눈을 들어 저 밭들을 보아라. 곡식이 다 익어 수확 때가 되었다. 이미 36 수확하는 이가 샅을 받고,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알곡을 거두어들이고 있다. 그리하여 씨 뿌리는 이도 수확하는 이와 함께 기뻐하게 되었다.

37 과연 ‘씨 뿌리는 이가 다르고 수확하는 이가 다르다.’는 말이 옳다. 38 나는 너희가 애쓰지 않은 것을 수확하라고 너희를 보냈다. 사실 수고는 다른 이들이 하였는데, 너희가 그 수고의 열매를 거두는 것이다.” 39 그 고을에 사는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 여자가 “저분은 제가 한 일을 모두 알아맞혔습니다.” 하고 증언하는 말을 하였기 때문이다. 40 이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머무르시기를 청하자, 그분께서는 거기에서 이들을 머무르셨다. 41 그리하여 더 많은 사람이 그분의 말씀을 듣고 믿게 되었다. 42 그들이 그 여자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믿는 것은 이제 당신이 한 말 때문이 아니오. 우리가 직접 듣고 이분께서 참으로 세상의 구원자이심을 알게 되었소.”

- 잠시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30초)
-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천천히 읽어 주십시오.
- 각자 마음에 와닿는 말씀 중에서 단어나 짧은 구절 또는 문장을 하나씩 뽑는 시간을 1분간 가지겠습니다.
- 10분 동안 각자 선정한 말씀을 돌아가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반복해서 읽겠습니다.

4. 말씀 나누기

- 그 말씀을 왜 선택했는지 또 그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어떻게 각자에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짧게라도 되도록 기도한 모든 이가 나누도록 합니다.)

5. 생활 나누기

- 그 말씀에 따라 실천할 거리가 있는 경우 나누어 주시고 그 안에서 우리 반의 실천 사항을 함께 정하겠습니다.

6. 전 모임 기록 낭독 및 출석 확인

- 지난번 반 회의록 낭독 및 출석 사항을 확인합니다. 전입자나 처음 나오신 분 또는 특별 게스트가 있는 경우에 소개합니다.

7. 건의 및 기타 토의

- 우리 소공동체에서 본당에 건의하거나 기타 토의할 사항에 대해 나눕니다.

8. 본당 성서 공부 질문 사항

- 본당 홈페이지 성서 공부 링크 https://standrewkimdetroit.org/detroit/bible-study_/에서 녹음 파일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성서 공부에 대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반장님이나 질문 링크 <https://forms.gle/EUiYKfnTfgku49fF7>에서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함께하는 소공동체

9. 공지 사항

- 본당 공지 사항과 구역, 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동네방네 메아리

- 신앙의 표양이신 주님을 닮아 공동체 안에서 나눔을 실천하고 타인의 모범이 되는 참 신앙인이 됩시다. (CT)
- 일상의 많은 유혹(게으름, 타성 등)을 잘 견디고 극복하는 사순절이 됩시다. (CT)
- 주님을 내 삶의 중심에 두고 기도하며 깨어있는 사순절을 보냅시다. (CT)
- 사순을 보내며 구체적 실천으로 십자가의 길 1회 이상 참여하기로 결심하였고 판공 성사에 참여하기로 하였습니다. (NV1)
- 가족이나 주변 사람에게 하루 한번 이상 칭찬을하기로 하였습니다. (NV1)
- 환경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회용 컵 사용을 자제하고 개인 텀블러 사용을 생활화합시다. (NV2)
- “완전한 사람이 되어라.” 인간의 유한함을 극복하고 완전한 사람이 되고자 노력하려고 합니다. (NV2)
- “원수를 사랑하여라, 악인에 맞서지 마라.”
내 힘으로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미사를 드리고 나면 미사의 은총으로 마음이 가라앉음을 느낍니다. (NV2)

10. 차기 모임장소와 날짜 정하기

- 다음 모임의 장소와 날짜를 정합니다.

11. 마침 기도

- 본당 소공동체를 위하여 모두 다 함께 ‘소공동체 기도문’을 바치겠습니다.
(기도문은 마지막 장에 있습니다.)
- 반 모임에 모인 모든 가정을 위하여 ‘가정을 위한 기도문’을 바치겠습니다.
(기도문은 마지막 장에 있습니다.)

12. 마침 성가

-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가톨릭 생활성가 셀라 211장 '생명의 물' 1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합니다.)

생명의 물

211

요한 4

김정식

사마 리 아 길 을 지 나 가 던 예 수 님 먼 길 에 지 치 셧 을 때 물

길 는 여 인 에 게 물 을 청 하 며 조 용 히 말 씀 하 셧 네 이

우 물 물 을 마 시 는 사 람 은 다 시 목 마 르 겿 지 만 내 내

가 주 는 물 을 마 시 는 - 사 람 은 영 원 히 목 마 르 지 않 아 나
가 주 는 물 은 생 물 처 럼 - 솟 아 영 원 히 살 게 할 것 이 니

를 구 원 하 러 오 신 예 수 님 당 신 을 사 랑 하 오 니 그

물 을 제 게 줌 주 십 시 오 다 시 목 마 르 지 않 게

- (십자성호를 그으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소공동체 모임 기도문

주님!

성자께서 당신 이름으로 모인 사람 가운데 함께 계실 것을 약속하셨사오니,

성령의 빛으로 오늘 모인 저희로 하여금 진리와 사랑으로

저희 마음에 은총과 자비와 평화를 풍부히 내려 주심을 체험하게 하소서.

완전한 일치이시며, 참된 사랑이신 주님!

오늘 이 소공동체 모임을 통하여 당신의 사랑을 배우고

당신의 위대한 희생을 본받으며 당신의 자녀들로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

향구한 일치로 굳세어지게 하소서.

또한 저희가 서로 형제 된 기쁨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친교를 이루며

이웃에 봉사함으로써 당신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저희 안에 힘과 용기와 지혜를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가정을 위한 기도문

마리아와 요셉에게 순종하시며 가정생활을 거룩하게 하신 예수님,

저희 가정을 거룩하게 하시고 저희가 성가정을 본받아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소서.

가정생활의 자랑이며 모범이신 성모 마리아와 성 요셉,

저희 집안을 위하여 빌어주시어 모든 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하시며

언제나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다가

주님의 은총으로 영원한 천상 가정에 들게 하소서.

아멘.